

◇한번 참선에들면 며칠간 미동도 하지않아 '절구통 수좌' 라는 별칭을 갖고있는 법전스님.



마음·생각 씻고 씻어 날로 새롭게

참선들면 미동도 안해…수좌들 사표

서 스승 원오 극근 선사가 편집한 종문의 제일서적이라는 〈벽암록〉을 손수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항상 욕심을 적게 갖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어서,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던 마음이 끊어지면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경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옷음지옥 불지옥에도 마음은 한가로울 것입니다. 불상이라는 상(相)의 모양에만 집착하는 대중들에게 상을 떠난 부처님의 진상(眞相)을 보라고 선사는 방편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거지도 거지가 아니라 대중이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즉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볼 수 있다면 여래를 볼 것'이라는 법문을 해주러 온 선지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사들이 불상을 통하여 자기의 안목을 열어갔고 또 남의 안목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 몸을 은둔시키고 세상을 훤히 내다보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수미산이 내 그 작은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되겠다 싶어서 향수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 역시 내 발바닥 밑으로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바닥 속에 파묻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바로 한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보통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을 없애야 성불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탐진치 그 자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탐진치가 있기에 나(我)라는 존재가 있고 탐진치가 없어지면 나(我)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탐진치 속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탐심이 제일 많고 진심(嗔心)이 제일 많고 치심이 제일 많은 그 놈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선 수행도 없으니

△수행은 누구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세계인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중이건 거기에 모인 대중이 복과 안목이 없으면 선지식을 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선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못 알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 운운' 하기 전에 내가 선지식을 모시고 살만한 안목과 복이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안목이 곧 나의 선지식입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목을 갖추면 천하에 선지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신통력이라고 해 봐야 그건 유위법(有爲法)의 하나일 뿐이지 생사(生死)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은 아닙니다. 아무리 호법선신이 수백 번을 나툰다 할지라도 그건 생사해결법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의 조그마한 신통력일 뿐입니다. 신통력을 신통력인 줄 알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여기에 무슨 큰 공부라도 한 줄 알면 이는 깨침과는 십만 팔천 리로 멀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한 염불 한 마디는 흐린 물속에 던져진 마니주 구슬입니다. 마니주를 던지면 흙탕물이 저절로 맑아지듯이 염불하면 모든 망념이 일시에 그칠 것입니다. 망념이 그치게 되면 세상이 맑게 개일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극정성으로 발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과 기도의 가피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많은 눈 밝은 사람이 쏟아져 나와 이 법당 안이 광명으로 빛나고 천장에 구멍이 수천 수만개 뚫리도록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참선이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그 공덕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도 편안해지고 이웃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편안해지고 미래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선이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조사선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전스님 행장

"부처님 법대로 살자" 봉암사 결사에 참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도림 법전(道林 法傳)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했다.

39년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백양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48년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쳑단신인 스님은 성격이 원만하고, 출가 이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왔다. 한번 참선에 들면 미동도 하지 않아 일 주일간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전스님의 가장 돋보이는 행장은 조계종 종풍을 확립한 문경 봉암사 결사에 1949년 참여한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성철, 청담, 향곡, 자운 스님 등이 이끄는 봉암사 결사의 말석을 차지하며 타사시구자(拖死屍句子: 무엇이 너의 송장을 끌고 왔느냐) 화두로 7개월간 정진하던 중 경계(境界)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등 공부의 힘을 얻는다.

1951년에는 6.25로 인하여 대중들은 봉암사를 떠나게 되자 통영 안정사(安靜寺) 천제굴(闡提窟)에서 성철 스님을 은법사(恩法師)로 모시고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받으면서 더욱 공부에 매진한다.

1957년에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 들어가 절문을 걸어 잠근 스님은 밥을 반말쯤 해놓고 양동이에 퍼서 방구석에 두고 두문불출 3개월 안거에 들어간다. 이불도

성철스님을 은법사로 공부에 매진
밥 반말 해놓고 석달 두문불출

베게도 모두 태워버리고 찬공기가 감도는 방에서 찬밥 김치조각 덕는 게 공양의 전부였다. 스님은 공부에 진척이 보이자 1955년부터 파계사 성전암에서 10년간 철조망을 치고 수행하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 인가(印可)를 받는다.

성철스님께 점검을 받는 경계는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 祖師西來意,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는 것. "시전(屍前)에 주삼작(酒三酌, 죽은 사람 앞에 술이 석잔입니다.) 창천(蒼天) 창천(蒼天)이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월(日月)이 동서별(東西別)하니, 좌인(坐人)이 기이행(起而行)이라. (일월이 동서를 분별하니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가더라)" 하고 답하자 성철스님은 인가를 한다.

'출격장부로서 장부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한 스님은 태백산 홍제사 토굴로 들어가 탐진치 삼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스님은 창원 성주사, 문경 갈평토굴, 태백산 도솔암, 김용사 금선대, 범어사 등 제방선원을 다니면서 10여년간 참선 수행했다.

1967년 해인총림 수좌 대표인 유나(維那)를 잠깐 지낸 스님은 1969년 김천 수도암에 선원을 복원하여 15년간 많은 납자들을 제접했다. 그리고 1981년 종회의장 1982년 총무원장을 잠시 지냈다. 1985년부터 해인총림 수좌(首座)로 해인사 선원에 머물며 본격적인 해인사 생활에 들어간다. 이듬해인 1986년 해인사 주지, 1994년 해인총림 부방장, 1996년 방장으로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 10월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되었다. 김원우 기자

헌 시

법전스님 종정추대에 부쳐

목정배(동국대 교수)

절구통 수좌 법전스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있지
그래 앉아계시면서
삼매적정(三昧寂靜)하시니
세상 밖에서 스님을
조계종의 종정 큰스님으로
법상에 올려놓으셔도
절구통스님은 묵언미소(默言微笑).

여말선초의 숭유억불하는
선림훼폄(禪林毁貶)의 광풍이 불어와도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이
우리 가풍을 이어 오게 한
조계정맥의 역로(歷路)가 아닌가
아니 역사도 삼대면면(三代綿綿)히
공업(共業)을 지어야만
창업(創業)이 수성되어
현현하고 유유한
문물을 구현하는데
수행승의 총림도
삼대로 이어온 화상이 있어
조선의 불교가 명맥이 되고
삼화상으로 지금껏
존숭(尊崇)을 받지 않는가
제라박타존자 지공대화상
보제존자 나옹대화상
묘엄존자 무학대화상.

희양산 봉암사에 모였던
눈 푸른 치납(緇納)들의 심검(尋劍)이여
불조혜명을 전등(傳燈)하려는,
조계돈오를 심전(心傳)하려는,
청정승가를 이룩하려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길 닦고 나무하고
물 길어 밥지어 먹으면서
오매일여(寤昧一如) 화두잡아
공부하고 원력세워
결사하였더니
그 공과 허무러지지 아니하고
봉암결사(鳳巖結社) 스님들중
세 분 종정나오시니
인(因)이 바르면 과(果)도 밝고
인(因)이 흐르면 과(果)를 찾을 수 없네.

해인적광(海印寂光)에는
본래 공(空) 화엄삼매(華嚴三昧)인데
어디서 눈이와 쌓일 것도 없는데
없는 눈을 쓸어 모아
눈 밝은 사람 보라 하니
퇴설당의 광명이다
법전종정 대종사
삼대광명 무량겁(無量劫).

알려드립니다

● 성 명 : 박 연 욱 (법명 : 의성)
● 주민번호 번호 : 420315-1178311
● 주민등록상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위 자는 대한불교 통화불현종 소속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망월암 주지를 사칭하여 대한불교 태고종 소속 망월암 소유의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양 안양 및 경기일원 각 지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바, 위 박연욱은 망월암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사오니 차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 3월 일

● 공고인 대한불교 태고종 망월암 주지 박 고 암
●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 연락처 031-472-3366

봉 청화 큰스님 초청 행
춘계 합동 천도재

백련산 신흥사에서는 곡성 태안사 조실이신 청화 큰스님을 모시고 춘계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영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업장 소멸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입재 - 2002년 4월 11일 (양) 목요일
회향 - 2002년 5월 2일 (양) 목요일

불교 교양대학 개설
▷ 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10시 -12시
▷ 내용 : ①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② 법화경 독송 및 강의 ③ 사군자 및 생활 역학 - 김부자(토)] 성광 혜인스님(목)

2. 장소 : 서대문구 홍은3동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TEL 02)395-1222 , 3216-2036
3. 교통 : 전철 -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 10번 마을버스 → 종점 → 신흥사
버스 - 8, 59, 522, 74, 806(정원여중하차 도보10분)
홍제역 통과 버스는 모두 가능함
→ 마을버스 10번 연결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성광 혜인 합장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5월 27일 ~ 6월 지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 연단의 자세와 제스처,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영가천도

"확실한 천도를 약속합니다"

왠만한 영가천도 영험담은
영험담 측에도 못낍니다.

정토사에서는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사를 위한 아미타 1000일 기도 중입니다.

1000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병산 정토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31)771-0227
016)999111-61